

풍광 좋고 걷기 좋네... 여수 10대 명품길

- 금오도 비렁길
- 거문도 녹산등대가는길
- 거문도 동백꽃숲길
- 개도 해풍산행길
- 사도 바닷길
- 소리도 등대길
- 돌산 종주길
- 금오산 고살길
- 봉화산 산림욕장 체험길
- 하화도 꽃섬길

市, 선정... 금오도 비렁길은 상표 출원도

여수시가 걷기 좋은 여수의 명품길 10곳을 선정했다. 시는 최근 '함께 떠나는 여수 길 이야기, 걷기여행' 책을 발간하고 금오도 비렁길(사진) 등 자연을 즐기며 걷기 좋은 명품길을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명품길은 금오도 비렁길, 거문도 녹산등대가는길, 거문도 동백꽃숲길, 개도 해풍산행길, 사도 바닷길, 소리도 등대길, 돌산 종주길, 금오산 고살길, 봉화산 산림욕장 체험길, 하화도 꽃섬길이다. 책에는 길 여행지 소개는 물론 총

길이와 소요시간, 코스와 예상소요경비를 자세히 안내했다. 또 먹거리와 체험거리, 주변관광지와 잠자리 등도 수록해 책 한편으로 걷기 여행이 가능하도록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여수 10경·10미, 기념품 판매소, 여수관광 안내지도, 교통·관광안내 등을 담아 명품길 관광 후 여수 주요 관광지로의 이동이 쉽도록 도왔다. 시는 홍보책자 1만3000부를 제작, 여수 관광안내소와 전국시도관광협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금오도 비렁길'을



상표 등록하기로 하고 여수시 심벌마크와 결합, 업무표장 외 7개 상품류별로 나눠 지난 15일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했다. 등록할 상품류는 업무표장, 제16류(문방구 외), 제18류(우산 외), 제25류(의류 외), 제28류(봉제인형 외), 제39류(자전거임대업 외), 제41류(서적출판업 외), 제43류(레스토랑업 외)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양, 무기 계약직 호봉제 전환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광양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호봉제 혜택을 누리게됐다. 광양시는 2일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의 급여체계를 단계에서 호봉제로 전환,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을 준비해온 광양시는 이날 무기계약직 노조와 호봉제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고용 정년은

보장되거나 급여는 1년단위 계약 연장 개념으로 임용 당시 정해진 급여가 거의 변동없는 단계제를 적용받았다. 이번 호봉제 적용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게 된다. 또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지급받게 된다. 광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138명의 무기계약직들은 지난해 대비 총액기준으로 7.6% 급여 인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녹차 젊은세대 홍보 '유 그린 원정대' 성료

보성군이 보성녹차를 젊은 세대에 알리기 위해 100여 명의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1회 유 그린(U-Green) 원정대'가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한국차박물관, 태백산맥문화관 등 보성 일대를 탐방했다. <사진> 이번 제1회 원정대에는 서울과 부산, 경남, 전북, 경기 등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 1차 신청 마감 기간을 앞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35명으로, 광주지역 48명에 이어 전체의 35%에 달했다. 대학생들은 첫날 녹차밭 보성향토시장에서 한바탕 공연과 장모기를 하

고 이어 한국차박물관과 보성차밭, 태백산맥문화관, 서재필 기념관 등 보성 일원을 탐방했다. 특히 한국차박물관에서는 전국으로 찾아가는 다례교실을 이끌고 있는 보성군 공직자 부인들로 구성된 보성예명원의 다례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이틀 동안의 탐방을 바탕으로 보성차밭 홍보를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보성녹차 이용한 판매상품 개발 아이디어, 보성차밭 주변 환경 디자인을 위한 시설물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게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단신

부안, 4일 마실축제 기념 시장가요제

부안군은 2일 "4일 오후 2시부터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부안마실축제 기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초대가수로 '땀방', '화장을 지우는 여자'의 강진, '늘 지금처럼'의 이예진, '인생 뒤이어'의 이진관 등이 출연한다. /부안=정재용기자 jyy0681@

이와 함께 행사 후에는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부안상설시장 상인회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맞춰 라면, 계란 등을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가, 판매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yy0681@

고창, 대산주민센터에 목욕탕 개장

고창군은 2일 "지난 30일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작은목욕탕을 준공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완주 도지사, 이상수 고창군수, 임동규 도의원, 김규형 교육위원, 정학수 전 농식품부 차관 및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대산면 작은목욕탕은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면적 136㎡에 온탕, 냉탕, 사우나실,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등 최적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무료,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식품부 차관 및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5일까지 '군산 흰찰쌀보리음식 요리대회'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군산시 산북동 풍당보리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전국 40개의 요리경연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3 군산흰찰쌀보리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추진단 주관

으로 '내 몸에 건강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학생부가 참여하는 보리개발음식 경연과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가족 요리경연으로 나눠 창의적인 요리 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산=박금석기자 jk@

순창,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순창군이 올해 처음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영농규모가 1000㎡ 이상 5000㎡ 이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단 정부에서 고시하는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벼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당 150원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거북선 복원 한창 3일 열리는 제47회 여수거북선축제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형 거북선 제작이 한창이다. 여수시는 임진왜란 당시 출전했던 실물 크기의 전라좌수영 거북선(연장 35.3m)을 복원해 오는 10월께 바다에 띄울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올 시장투어 코스에 '순천웃장' 선정됐다

순천시는 2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올해 시장투어 코스'에 '순천웃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전국 전통시장 15곳이 선정된 '올해 시장투어 사업'은 오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밝힌 '순천 웃장' 투어코스는 천년고찰 선암사~순천만 자연생태공원~순천웃장 순이다. 특히 '순천 웃장' 명물인 '웃장국밥'은 저렴한 가격으로 2그릇을 주문할 경우 수육을 골짜로 먹을 수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과 수원에서 출발하는 시장투어코스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진행된다. 시는 참석자들이 정원박람회장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시장투어코스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강릉중앙시장, 주문진수산시장, 하리제일시장, 남해전통시장, 중앙전통시장, 하동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 구미중앙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신영시장, 무주반딧불시장, 장항전통시장, 보은전통시장, 박달재전통시장 등이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전북

남원 춘향테마파크 새 관광명소로

체험프로그램·공연 상설화... 유료입장객 33% 늘어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가 남원관광의 새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남원시는 2일 "프로그램 민간위탁 이후 3~4월 유료입장객은 1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0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험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상설화돼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입장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춘향테마파크의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이다.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고전문학 춘향전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

소리를 배경으로 마당극 춘향전·사물놀이공연, 관소리배우기, 장구로 배우는 민요체험, 공예체험, 춘향·이도령 그네뛰기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이다. 옥사정에서는 관광객이 목 칼, 목수갑을 직접 차고 곤장을 맞는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조선시대 전통의복을 입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상설공연은 연말까지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체험행사는 화~일요일 상설 운영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새만금 문화 중심축 담당 군산 예술의 전당 문열어

새만금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군산 예술의 전당이 지난 1일 개관했다. <사진> 지곡동 3만9048㎡의 터에 건물 연면적 2만384㎡인 군산 예술의 전당은 전시실, 이동·회전무대 등 최첨단 무대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 등 16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완공까지 4년이 걸렸으며 810억원이 투자됐다. 군산시는 개관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했다. 1일에는 '군산이여 비상하라'란 주제로 인기국악인 남상일·이호연, 피

아니스트 임동창, 메조소프라노 김현주, 타악단체 동남풍 등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2일에는 군산시립예술단과 인기가수 인순이, 신효범, 카이, 포맨, 성악가 서정화, 박민정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이밖에 소프라노 조수미의 'A Night With Verdi' 공연(5월7일), 국립오페라단의 '갈라판서트'(5월), 체험전시 '콩이랑 아이랑'(6월), 연극 '육탄방 고양이'(9월), 뮤지컬 '젊음의 행진'(10월), 년비벌 퍼포먼스 '난타'(11월) 등이 예정돼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jk@ 전북취재본부장

초등생 '마음건강 힐링교실' 운영

순창군, 7월 18일까지

순창군은 2일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힐링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의 다양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되는 마음건강 힐링교실은 7월18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힐링교실은 불안과 우울 정도,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등의 사전검사를 통해 심리학적 진단을 내린다. 진단결과 학교 부적응, 문화적 소외,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는 미술심리치료, 공예·원예활동,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을 지원해 원활한 정서발달을 돕는다.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인 미술 치료는 시각매체를 사용해 인간 내면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가 이뤄진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분홍빛 철쭉 뒤덮인 고창읍성

지난 1일 분홍빛 철쭉으로 뒤덮인 고창읍성. '모양성'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자연성 성격으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10월 성발길놀이도 열린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분홍빛 철쭉으로 뒤덮인 고창읍성. '모양성'으로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1453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자연성 성격으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어 매년 10월 성발길놀이도 열린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